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

### 군산시 최종보고회... 수산물 고부가가치화 · 식품산업개발 · 유통활성화 논의

군산시가 새만금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수산물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상황실에서 글로벌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김영준 군산시장,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장,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어업인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의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와 식품산업개발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도출했다.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수산물 위판물량이 나후된 가공유통 구조로 원물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유통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새만금사업단지 2공구 약8만평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 등 유관기관과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사업기반이 되는 1차사업(군산시 직접사업)으로 약1만평에 대하여 국비 및 지방비 약 450억원을 투입해 산학연구센터, 수출·유통협력지원센터, APT형공장, 해수 인·배수 시설 신축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

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주)나우건설턴트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용역 최종보고에서는 수산식품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전북(군산)의 다양한 수산물을 어떤 방향으로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개발하고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방안등을 발표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에서 유통을 아우르는 지속성장 모델을 발굴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 클러스터가 구축됨으로써 전라북도 수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산업 및 해상풍력 등 각종국책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잃어버린 지역어업인의 염원 해소 및 소득증대는 물론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의 안전성향상과 특산화를 추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준 군산시장은 "군산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등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특산물 개발 및 브랜드화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통기공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군산수산물의 국내외 판매증대는 물론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선순환 지역경제 육성으로 잠재된 수산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가 펼치고 있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 '마르지 않는 쌀통' 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

## ‘마르지 않는 쌀통’ 기부 챌린지

### 군산대 새 기부 문화 만들어

군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가 펼치고 있는 슬기로운 나눔생활 '마르지 않는 쌀통' 이 새로운 기부 문화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부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마르지 않는 쌀통 기부 챌린지는 쌀 2kg 또는 이에 해당하는 6000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 기부 챌린지의 새로운 점은 기부 챌린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자가 챌린지 사이트( <http://ksnukr.org/> )를 통해 다음 참여자의 지명이 쉽게 이뤄지도록 지원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13일에 시작된 '마르지 않는 쌀통' 챌린지는 군산대학교 강건 총학생회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군산대학교 링크+사업단 산하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가 주관하고 있다.

강건 총학생회장의 지명으로 광병선 총장이 챌린지 기부자로 동참했고, 대학의 보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군

산대학교 교수, 교직원 학생들의 참여가 계속 이어졌다. 현재 군산대학교 구성원 외에도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군산대학교 광병선 총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인데 코로나19라는 이중고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감사하다"며 "마르지 않는 쌀통 기부 챌린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참여소감을 밝혔다.

링크+사업단 김영철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에게는 쌀을 구매해주고, 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쌀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식생활의 곤란이 없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본 프로젝트를 적극 지지했다.

사회혁신산학협력센터 센터장 강영숙 교수는 기부된 금액의 활용에 대해 "우선 취약계층 거주지 3곳을 선정하여 2kg 단위의 쌀을 매주 30개씩 갖다 놓아 필요한 사람들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7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해 쌀통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는 17일 시청 4층 상황실에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기공클러스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세계유산 문화재 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익산시가 세계유산 도시의 풍성한 문화재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백제왕궁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시민들이 문화재와 친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시는 세계유산을 탐방하며 문화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박물관을 품은 미륵사지 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참가자들은 명사와 함께 직접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곳곳을 탐방하며 백제로의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또 국립익산박물관 야외공연장과 미

륵사지에서 클래식과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백제시대 무왕의 무덤으로 추정되고 있는 쌍릉에서는 '백제왕도 익산여행'을 주제로 오는 11월까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 공간에서는 백제시대 건축과 의복, 전통놀이 등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

7월에는 백제왕궁의 색다른 야간 풍경을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재 야행'이 펼쳐진다.

지역 문화재를 활용해 8월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지난해보다 한층 더 강화된 이색적인 내용으로 시민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익산=정왕원기자

## 익산폴리텍대학 졸업 · 재학생 전북도 기능경기대회서 두각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가 제50회 전북도 기능경기대회에서 주얼리 디자인과를 졸업한 이종림씨가 금메달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이종림씨를 비롯한 김성원씨 등 4명이 각종 메달을 수상하며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을 얻었다.

이종림씨는 올해 익산폴리텍대학을 졸업했다. 또 같은 학과를 나온 김성원씨는 이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상했다.

2018년 졸업한 유재은씨는 주얼리가공 분야에서 동메달을 수상했으며 컴퓨터응용기계과에 재학 중인 김동진씨가 기계설계(CAD) 분야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익산=정왕원기자

## 고미영킵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27일 군산서

제11회 고미영킵 전국 청소년 스포츠클라이밍대회가 오는 27~28일 군산시 소룡동 인공암벽장에서 열린다.

2020년도 세계유스선수권대회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전을 겸해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생부터 고등학교생까지 주니어, 유스(Youth) A~E로 연령별 6개 부문으로 나뉘어 200여명의 선수들이 난이도와 속도, 볼더링 경기에서 기량을 겨룬다.

난이도(Lead) 경기는 인공암벽에 설치된 고리(퀵드로)에 순서대로 로프를 클리핑하며 올라가는 경기로 등반한 거리로 순위를 결정하고, 속도(Speed) 경기는 스피드브 정상에 설치된 결승점

까지 빠르게 완등 하는데 소요된 시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볼더링(Bouldering)은 여러 개의 짧은 기술적인 루트(볼더)를 시도하여 얼마나 많이 성공했는지로 선수가 득한 점수와 이 점수를 득하기 위한 시도 횟수로 선수의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다.

고미영킵 대회는 인공 암벽등반에서 독보적인 기량을 보여주며 세계적 여성 산악인으로 평가받는 정복 출신인 고미영 대장의 도전 정신을 기리고자 2010년도부터 서울 경기,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매년 개최되어 오다 올해 군산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

/군산=김판곤기자

## 지역 소식통

### 멸종위기종 흰발농게 군산시, 이주작업 착수

군산시가 흰발농게 이주(포획)지역에 들어가며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연육된 선유도 해수욕장 일원은 도서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지만 기초적인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여 관광객과 주민들로부터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민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만금간척지 조성사업을 위해 취득한 매립면허권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일부 매입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선유도 배후부지 일원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의 서식이 확인됨에 따라 흰발농게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했다. 이후, 흰발농게에 대한 대규모 서식을 확인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면적인 16만㎡에서 흰발농게 서식환경을 고려해 대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2만7,000㎡로 계획면적을 대폭 축소했다.

/군산=김판곤기자

### 농관원 익산사무소 '원산지 표시판' 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익산사무소(이하 농관원 익산사무소)는 익산 북부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전통시장의 자율적 원산지 표시'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17일 익산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을 비롯해 북부시장 상인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익산지회 등이 참여했다.

사무소는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가 부족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장 상인 스스로가 원산지 표시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익산=정왕원기자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